

중국 수출화물 포장 주의 요망

무역협회, 팔레트·반침목 보조목재는 반드시 열처리해야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을 적재한 컨테이너 내에 화물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목재에서 병해충이 발견돼 무역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중국검역당국의 수출입물품 검역시 나무상자 등의 목재포장재에서는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수출입물품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목재에서 해충이 발견되어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수출 무역기업들은 수출화물을 포장하는 나무상자와 팔레트는 물론이고 반침목 등 보조목재도 열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립식물검역소는 중국 수출기업들이 반침목 등 보조목재는 열처리 대상 목재포장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컨테이너 적입현장에서 열처리한 보조목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사소한 부주의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현재 열처리를 거치지 않은 한국산 침엽수 목재포장재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해체해 제충 처리하고 해체가 불가능하면 화물과 동시에 제충 처리하며, 처리방법이 없으면 화물과 함께 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 11/ 07>